

금호폴리켐, 생산성 은탑산업훈장

산자부, 기옥 대표이사에 수여 ... 생산성 향상에 노사관계 개선필요

금호폴리켐이 10월 생산성 혁신의 달을 맞이해 개최된 국가 생산성 혁신대회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산업자원부는 10월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0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를 개최해 생산성 혁신과 노사협력에 기여한 기업인과 국내기업을 포상하고 국내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 기업 자가진단 서비스(ePRINS)를 10월부터 중소기업에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07년에는 온라인 기업 자가진단 서비스(ePRINS)와 기존의 경영혁신지원모델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통합 경영혁신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역량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10월 대구(17일), 부산(19일), 대전(24일), 광주(26일) 등에서 생산성 혁신 우수 사례 발표회를 하고 10월 27일에는 생산성본부에서 공공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세미나를 할 예정이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국가생산성혁신대회 축사를 통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혁신 역량 강화, 혁신 주도형 성장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3위이고 2000-03년 제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63.0%, 일본의 84.3%이며, 서비스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0.9%, 일본의 53.4%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공사 사장과 공사의 노사 위원장은 기업인과 근로자를 대표해 노사화합을 통해 세계 일등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의 노사공동 선언문을 선서했다.

이와 함께 국가 생산성대상 시상식에서 LG마크론의 조영환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금호폴리켐의 기옥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고, LG전자 DA사업본부, 대흥R&T, 한국중부발전, 한국농촌공사가 기업·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10>